

평양 석암리 9호분 노기에서 발견된 묵서

최정아* · 이태희**

목 차

- I. 머리말
 - II. 석암리 9호분 출토 노기
 - III. 노기의 묵서
 - IV. 맺음말
-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문요약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노기는 형식상 전형적인 후한대의 노기이다. 특이한 점은 괄의 표면에서 묵서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글자는 ‘趙子陵用’ 4자로 ‘조자릉’이라는 인물이 사용 혹은 소유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노기 명문은 노기의 제조과정 및 공정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한 기록도 간혹 보이거나 이는 드물게 확인될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명문은 표면에 새기는 각명刻銘이다. 이에 반해 석암리 9호분 노기의 명문은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름을 묵서로 적었다는 점에서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묵서로 쓰인 노기 명문에 대해 아직 알려진 예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향후 한대 금속기 명문에 대한 보존처리 및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석암리 9호분 노기의 묵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석암리 9호분, 낙랑, 한, 노기, 묵서, 명문, 예서, 조자릉, 평양

I. 머리말

쇠뇌(弩)는 방아쇠를 이용하여 화살을 발사하는 원거리용 발사장치이다. 활에 기계장치를 더하여 강도와 사정거리, 명중률을 높인 것으로, 활(弓)·노비弩臂·노기弩機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쇠뇌는 몸체인 노비 앞쪽에 활을 부착하고 뒤쪽에는 홈을 파서 노기를 장착한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중앙박물관 2018)

노기는 방아쇠인 현도懸刀, 가늠쇠 역할을 하는 망산望山, 시위를 거는 아牙, 멈춤쇠인 구심鉤心을 결합해 노기의 몸체인 곽郭에 넣고 고정쇠인 건鍵을 끼워 만든다.¹⁾ 시위를 걸고 방아쇠를 당겨 화살을 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는 주로 노기에 걸린다. 따라서 노기의 견고함이 곧 쇠뇌의 성능과 연결되며 그 형식 변화는 기능의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 처음 노기가 제작된 시기는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 사이로 추정된다. 초기의 노기는 따로 곽이 없이 노비 몸체에 아와 구심, 현도를 장착하는 무곽식無郭式이었으나 전국시대 말기부터 별도의 금속제 곽을 만들어 끼우는 유곽식有郭式으로 변화했다. 노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노비로 바로 전달되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기는 중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형식도 다양해졌다. 특히 곽의 평면 형태가 초기에는 앞이 비스듬하게 좁아지는 사견형斜肩形이었으나, 단이 생기며 평면凸자의 절견형折肩形으로 변화되었다.²⁾ 또 망산은 점점 길어지고 끝이 넓어지며, 현도 역시 아래가 넓어지고 손으로 잡는 부분이 호형으로 변하는 등 시기에 따른 변화가 관찰된다. 후한 이후에는 대형 쇠뇌가 등장하며 더욱 강력한 무기로 발전되나, 송대 이후 화기가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毛穎 1998).

노기는 전국시대부터 무덤에 부장되었다. 부장품 가운데는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는 반면 일부는 애초부터 부장용으로 제작한 것도 있다. 시안(西安) 북교 정왕촌(鄭王村) 6호분, 뤼양(洛陽) 젠서(澗西) 48호분 등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납으로 만든 노기가 발견되었다. 산둥(山東) 린이(臨沂) 시옌츠(洗砚池) 진묘晉墓에서는 무덤 조성 시점

1) 노기 각부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釋名』에 따른 것이다. 『釋名』「釋兵」, “弩는 성내다(怒)는 뜻이다. 그 기세가 성내는 듯하다는 말이다. 그 자루는 ‘臂(팔)’라 한다. 사람의 팔과 같기 때문이다. 시위를 거는 것을 ‘牙(이빨)’라 한다. 이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를 넣는 틀을 ‘櫛’이라 한다. 아래를 ‘懸刀’라 한다. 그 모양이 그런 것이다. 이것을 결합한 이름이 ‘機(베들)’다. 베들처럼 정교하다는 말이다. 또한 문의 빗장과 같이 열고 닫는데 절도가 있다는 말이다.(弩怒也, 有勢怒也, 其柄曰臂, 似人臂也, 鉤弦者曰牙, 似齒牙也, 牙外曰郭, 爲牙之規郭也, 下曰懸刀, 其形然也, 合名之曰機, 言如機之巧也, 亦言如門戶樞機, 開闔有節也.)”

2) 毛穎(1998)은 곽의 형태를 ‘斜肩□形’과 ‘折肩凸形’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사견형과 절견형으로 표현하였다.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正始二年(241)”명 노기가 발견되었는데, 벽사 염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오래된 물건을 매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張學鋒 2008)

중국 노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표면에 명문을 새겼다는 것이다. 광, 현도, 아 등 각 명 위치도 다양하다. 초기에는 관직명, 연도 등 비교적 짧고 간단한 내용을 새겼으나, 점차 체제가 완비되면서 글자 수가 많아지고 노기의 강도, 가치 등 내용도 다양해졌다. 기본적으로 노기의 각명은 노기 관리를 위한 것으로 당시의 무기 관리체제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毛穎 1998, 謝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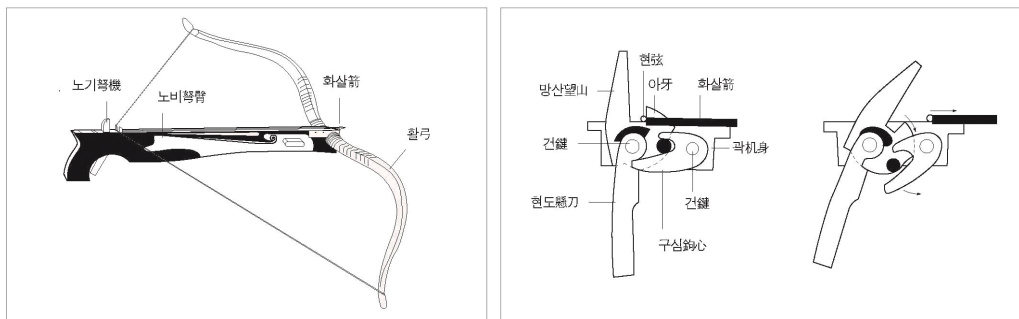


그림 1. 쇠뇌(좌)와 노기(우)의 구조 및 명칭 (출처: ‘평양 석암리 9호분’ 참고도판 118)

Ⅱ. 석암리 9호분 출토 노기

쇠뇌는 고대 전쟁에서 사용한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신라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이정빈 2010). 북한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의 노기가 종종 확인되는데, 이는 석암리 219호분·정백리 127호분·정백동 37호분 등 주로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석암리 9호분에서는 목곽의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노기 1점이 출토되었다(본관4765). 광의 길이는 14.5cm이며, 평면은 절전형으로 앞이 짧게 돌출되었다. 망산은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이며, 망산 길이 5.8cm, 아 길이 1.2cm로 망산이 아에 비해 약 5배가량 길다. 현도는 상단과 하단이 구분되며, 하단이 더 넓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모가 없이 둥글고 두툼하게 만들어 손으로 잡기 쉽게 만들었다. 노기의 여러 부품을 연결해 노비에 고정하는 건은 2개 모두 끼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건의 머리는 정육각형이고 반대 쪽에는 멈치를 끼울 수 있는 작은 원형구멍을 뚫었다. 앞에 끼운 건은 뒤의 것보다 약간 짧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노기는 중국 후한시기의 노기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다른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의 제작시기인 기원후 1세기 초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석암리 9호분 노기는 제작시기와 부장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석암리 9호분 노기(붉은 색 표시 부분은 묵서 위치임)

Ⅲ. 노기의 묵서

석암리 9호분 노기의 묵서는 표면을 덮은 녹과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던 중 확인되었다.³⁾ 묵서는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아 알코올로 해당 부위를

3) 석암리 9호분 노기 묵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부에서 보존처리 과정 중 발견하였다. 이후 묵서의 정확한 판명을 위해 현미경 촬영, X-선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도 진행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연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보존처리부에 감사드린다.

적서 촬영하였다(그림 3).

목서는 광의 앞쪽으로 튀어나온 크기 2.8cm×2.2cm의 장방형 청동판 뒷부분에 있다. 글자는 ‘趙子陵用’으로 4자이다. 총 2열로 1열에는 ‘趙子陵’ 세 자를, 2열에는 ‘用’ 한 자를 썼다. 모두 예서隸書로, 1열의 첫 글자는 좌변은 상부가 ‘土’, 하부가 ‘止’로 ‘走’이고 우변은 ‘肖’로, ‘趙’다. 석문송石門頌 등 한대 금석문에서도 이와 같이 쓴 예를 볼 수 있다(그림 4). 아래로 ‘子’와 ‘陵’은 잘 보인다. 2열의 ‘用’은 마지막 획을 아래로 길게 내렸다. 이 같은 서법은 한대 간독簡牘 및 금석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림 3. 석암리 9호분 노기의 목서(좌: 처리 전, 우: 처리 후)

그림 4. ‘趙’ (石門頌 가운데)

명문의 ‘조자릉’은 인명으로 판단된다. 『후한서』에 수록된 인물 중에도 ‘자릉’을 字로 사용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⁴⁾ 성 및 자로 볼 때 조자릉은 중국인(한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낙랑군의 군치에는 고조선 멸망 이전부터 다수의 중국인 망명자가 들어왔으며, 군 설치 이후에는 산둥山東의 관리가 대거 파견되었다. 뒤에 ‘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자릉은 노기의 소유주이자 사용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석암리 9호분의 규모나 부장품을 고려할 때, 조자릉을 무덤의 주인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대의 노기 명문 대부분은 제작공장 또는 제작공정을 기록한 것이다(표 1 참조). 전한시대 노기 명문 다수는 “공관工官+일련번호(숫자)+종별(甲, 乙, 丙, 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후

4) 후한대 인물 중 字로 ‘子陵’ 쓴 예는 다음과 같다.

『後漢書』卷41「第五鍾離宋寒列傳」, p.1402. (제오중리의 작은 아들 頡의 夾註) “三輔決錄注曰, ‘頡字子陵, 爲郡功曹, 州從事, 公府辟舉高第, 爲侍御史, 南頓令, 桂陽·南陽·廬江三郡太守, 諫議大夫.’”
『後漢書』卷63「李杜列傳」, p.2081. (陳國 何臨의 夾註) “臨字子陵, 熙之子, 爲平原太守, 見百家譜也.”
『後漢書』卷83「逸民傳」, p.2763. “嚴光, 字子陵, 一名遵, 會稽餘姚人也.”

한 노기 명문도 대부분 제작 이력을 기록한 것인데, 전한 명문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다. 허난(河南) 링바오(靈寶) 한묘 출토 노기 명문은 “영원6년 고공에서 제작한 8석 노기의 괘, 공인 오맹 제작, 조공 왕산, 태복감 우공연 임, 영 료, 승 시, 연 탕, 사 단 주관⁵⁾”으로 “제작 기년+종류(성능)+부품명+제작자+공정 책임자+감독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 위진시대 노기 명문은 후한대에 비해 공정이 더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전국~삼국시대 명문 노기

연번	시대	출토지 (연도)	명문 구분	내용	명문 위치	출처
1	戰國 (楚)	-	기념 (刻書)	二十九年, [秦]攻[吾], 王[以]子橫質[于]齊, 又使景鯉、蘇歷[以]求平, 竝(并)令尹乍(作)弩五千, 矢冊萬與之, 重丘左司工辰乍(作)三(四)千又卅五. 戊午, [以]重刃耜與秦, [其]與金與絲與帛與奴與[城]	懸刀 側面	『考古與文物』 13-1, 17-3
2	戰國 (秦)	陝西 寶雞 (78)	제작 (刻書)	丞廣	望山 正面	『文物』 80-6
3	秦	河南 洛陽 (08徵集)	제작 (刻書)	十九年, 高陵君, 工起, 金	懸刀 側面	『中國歷史文物』 09-1
4	秦	陝西 西安 始皇陵	대오 (墨書)	甲 / 九 / 武	懸刀 側面	『中國新聞網』 19.7.10.
5	前漢	陝西 西安 未央宮 (86~87)	제작 (刻書)	南陽工官第二千一百升八 南陽工官第二千二百一十四 南陽工官第五百升八 南陽工官第三百一十 南陽工官第二百一十	-	『考古』 89-1
6	前漢	福建 崇安 (59)	제작 (刻書)	河內工官, 二千六百五[十]六, 甲	-	『考古與文物』 88-4
7	前漢	河南 洛陽 (徵集)	제작 (刻書)	河內工官剪, 三千九百廿三號 / 三十八	郭	『考古』 61-4
8	後漢	河北 定縣 (59)	제작 (鑄)	建武卅二年(56)二月, 虎賁官冶十凍銅糯錯鐵百一十枚. 工李岩造, 部郎內, 彤朱, 掾主, 右史侍郎劉伯錄.	郭	『文物』 64-12

5) 杨育彬·张长森·赵青云, 「灵宝张湾汉墓」, 『文物』1975-11, p.81. “永元六年(94)考工所造八石機郭. 工吳孟作, 造工王山, 太僕監右工掾臨, 令倫, 丞詩, 掾宕, 史旦主.”

연번	시대	출토지 (연도)	명문 구분	내용	명문 위치	출처
9	後漢	河南 靈寶 (72)	제작 (刻書)	永元六年(94)考工所造八石機郭. 工吳孟作, 造工王山, 太僕監右工掾臨, 令倫, 丞詩, 掾寗, 史旦主.	郭	『文物』 75-11
10	後漢	簠齋藏	제작	永元六年(94)考工所造四石機郭. 工袁□作, 造工王小, 太僕護工掾臨, 令共, 丞霸, 掾珍, 史咸主.	郭側	『文獻』 09-1
11	後漢	簠齋藏	제작	元初二年(115)四月造作償邊發八石機郭千八百廿四具輩. 工史伯, 令福, 丞游, 掾慶, 史種, 虎晉, 猛別監.	郭側	『文獻』 09-1
				八石. 中尚方監作. 張元延. 縣虎.	郭面	
12	後漢	簠齋藏	제작	元初二年(115)四月…(판독불가)	郭側	『文獻』 09-1
13	後漢	簠齋藏	제작	永和二年(137)五月書言府作四石機郭. 工史齊, 令肅, 史開主.	郭側	『文獻』 09-1
14	後漢	簠齋藏	제작	永壽二年七月己卯, 詔書作四石機郭. 工童廣, 史足, 掾汜, 丞善, 令樣監作.	郭側	『文獻』 09-1
				考工. 四石. 掾汜. 史宮.	郭面	
			미상	王甲	郭底	
15	漢	簠齋藏	미상	館陶郭小	郭面	『文獻』 09-1
16	漢	簠齋藏	인명	河東馮久	郭前	『文獻』 09-1
17	漢	簠齋藏	인명	河東李游	郭前	『文獻』 09-1
18	漢	簠齋藏	길상 문구	大吉	郭面	『文獻』 09-1
19	漢	簠齋藏	제작자	何氏	望山側	『文獻』 09-1
20	後漢 이후	簠齋藏	제작자	邵贊	郭前	『文獻』 09-1
				陳宗	郭後	
21	三國 (魏)	河南 新鄉 (86)	제작 (刻書)	正始二年五月十日, 左尚方造. 監作吏邑泉, 牙匠馬廣, 師王丙, 臂匠江子, 師宋阿	郭 右下方	『中原文物』 88-2
22	三國 (魏)	江蘇 南京 (59)	제작 (刻書)	正始二年五月十日, 左尚方造. 監作吏龜泉, 牙匠馬廣, 師陳耳, 臂匠江子, 師口口	郭 右下方	『中原文物』 88-2
23	三國 (魏)	山東 臨沂 (03)	제작 (刻書)	正始二年五月十日, 左尚方造. 監作吏晁泉, 牙匠馬廣, 師張白, 臂匠江子, 師王阿.	郭 右下方	『中國歷史文物』 06-3

연번	시대	출토지 (연도)	명문 구분	내용	명문 위치	출처
24	三國 (魏)	安徽 壽縣 (80年代)	제작 (刻書)	正始二年五月十日, 左尚方造, 監作吏晃泉, 牙匠馬廣, 師陳耳, 臂匠江子, 師項種.	郭 右下方	『中國歷史文物』 05-6
25	三國 (魏)	河南 沈丘 (85)	제작 (刻書)	正始五年一月一日, 中尚方造, 監作牙吏宋膺, 匠彭臣, 師馮生作, 臂吏任昭, 匠門彥, 師衛口作.	郭 右下方	『中原文物』 88-2
				正始□年□造, 監作牙吏未膺, 匠彭臣, 師口作, 臂吏口進, 匠□師□.		
26	三國 (吳)	河南 南陽 (74)	사용자 (刻書)	征北朱將軍士王勇	郭 右下方	『中原文物』 86-4
27	魏晉 추정	山東 鄆城	제작 (刻書)	臂師虞士, 耳師張柔.		『夢溪筆談』 卷19

노기 사용자의 이름이 새겨진 예로 허난(河南) 난양(南陽)에서 출토된 “征北朱將軍士王勇弩” 노기가 있다(毛穎 1998). 청대의 학자 진개기陳介祺(1813~1884)가 수집한 후한 노기 가운데 “河東 馮久”, “河東 李游” 등 군망郡望과 인명을 새긴 예가 보이나 명문만으로는 제작자인지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석암리 9호분 노기의 묵서는 일반적인 한대 노기의 명문과는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⁶⁾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노기 명문은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각명이나, 석암리 9호분의 명문은 먹으로 글자를 적은 묵서이다. 노기의 각명은 제작시기 및 과정, 이력 등을 담은 것으로 노기 관리를 위해 제작 전후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묵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 노기 소유자나 사용자도 명문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노기 묵서가 보고된 예가 많지 않은 데는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시황제릉박물관秦始皇帝陵博物院은 진시황릉 출토 노기 묵서를 분석하여 송연묵松煙墨으로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육안으로는 표면이 부식되어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6) 물론 명문 연구가 관영수공업 또는 제작공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명문 내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IV. 맺음말

석암리 9호분 노기는 후한대 청동제 노기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덤 조성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괘의 표면에서 묵서로 쓰인 명문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대 예서의 실례라는 점에서 서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나 표현방식 면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명문은 4자로 글자 수가 많지 않고 단지 인명에 불과하나 드물게도 노기의 사용자 혹은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기의 사용자 조자룡의 족성인 조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낙랑 관련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명문의 표현방식도 차이가 있다. 석암리 9호분 노기 명문은 묵서인데 반하여 지금까지 공개된 노기 명문 대부분은 각명이다. 묵서명 노기는 중국에서조차 보고된 예가 드물다. 상호 비교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 석암리 9호분 노기와 같이 이미 공개된 다른 노기에서도 추가로 묵서가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노기 등 한대 금속 제품의 보존과학적 조사 연구가 심화되어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漢書』

『後漢書』

『資治通鑑』

『釋名』

『夢溪筆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중앙박물관, 2018, 『평양 석암리 9호분』.

李廷斌, 2010, 「6~7세기 고구려의 쇄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軍史』 제77호.

刘余力·周建亚·潘付生, 「高陵君弩机考」, 『中國歷史文物』 2009-1, pp.48~50.

李瑞亮·张雷, 「安徽博物院藏“建安十年”弩机铭文补释」, 『中国国家博物馆馆刊』 2020-6, pp.60~64.

李瑞亮·张雷, 「皖西博物馆藏弩机铭文补释」, 『東方收藏』 2019(19), pp.108~110.

马德娴, 「定县北庄汉墓出土文物简报」, 『文物』 1964-12, pp.26~45.

毛 颖, 「弩机概论」, 『东南文化』 1998-3, pp.109~117.

谢 凌, 「战国至三国时期的弩机」, 『四川文物』 2004-06, pp.52~58.

徐占勇, 「弩机上的书法艺术」, 『东方艺术』 07(20), pp.78~83.

孙合肥, 「二十九年弩机铭文补释」, 『考古与文物』 2017-3, pp.120~122.

杨 琮, 「“河内工官”的设置及其弩机生产年代考」, 『文物』 1994-5, pp.60~64.

杨国庆·夏志峰, 「正始弩机铭文考释及有关问题」, 『中原文物』 1988-2, pp.69~73.

杨勇伟, 「“章和元年”铭款错金银弩机考略」, 『文物世界』 2016-6, pp.36~38.

杨育彬·张长森·赵青云, 「灵宝张湾汉墓」, 『文物』 1975-11, pp.75~93.

吴镇烽·朱艳玲, 「二十九年弩机考」, 『考古与文物』 2013-1, pp.25~27, 44.

王廣禮·崔慶明, 「王勇弩機考」, 『中原文物』 1986-4, pp.91~92.

王红武·吴大焱, 「陕西宝鸡凤阁岭公社出土一批秦代文物」, 『文物』 1980-6, pp.94~95.

赵晓军·姜涛·周明霞, 「洛阳发现两件西汉有铭铜弩机及其相关问题」, 『华夏考古』 2010-1, pp.115~119.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汉城工作队, 「汉长安城未央宫第三号建筑遗址发掘简报」, 『考古』 1989-1, pp.19, 33~43.

陈 直, 「福建崇安城村汉城遗址时代的推测」, 『考古』 1961-4, pp.219~221.

张其海·林忠干, 「崇安汉城遗址出土的文字符号」, 『考古与文物』 1988-4, pp.65~70.

張學鋒, 「山東臨沂洗砚池晋墓墓主身份蠡測—以隨葬品的考察為中心」, 『文史』 2008-1, pp.31~49.

研究表明：兵马俑青铜弩机上的墨书是松烟墨 / 中国新闻网(2019.7.10.)

<https://baijiahao.baidu.com/s?id=1638666490710030253&wfr=spider&for=pc>

【Abstract】

Ink Inscription Discovered in the Cross-bow Trigger from Tomb No. 9
at Seogam-ri, Pyeongyang

Choi Jungah · Lee Taehee*

The cross-bow trigger from Tomb No. 9 at Seogam-ri, Pyeongyang, is typologically a typical cross-bow trigger of the Later Han period. Interestingly enough, the underside of the upper protruding section of the cross-bow's trigger frame features an inscription written in ink. Consisting of the four characters 趙子陵用,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owned or used by a person called Jo Jareung (Zhao Ziling)".

Inscriptions found on Chinese cross-bow triggers mainly addres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object. Inscriptions pertaining to the object's owner or user are only very rarely found. In addition, most inscriptions are carved into the surface. In contrast to this, the inscription found on the cross-bow trigger from Tomb No. 9 at Seogam-ri was written in ink. Given the content and rendering method of the inscription, this example is intriguing indeed.

Not many examples of ink inscriptions on cross-bow triggers are known but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for future discoveries. It is hoped that future conservation work and future investigations on the metal objects of the Han Dynasty period will contribute to furthering the discussion on the ink inscription on the cross-bow trigger from Tomb No. 9 at Seogam-ri.

Key words : Tomb No.9 at Seogam-ri, Nangnang, Later Han, Cross-bow Trigger, ink inscription, clerical script(隸書), Jo Jareung (Zhao Ziling), Pyeongyang

* National Museum of Korea